

[사회]

T트렌드 대학축제 대변신 “주민·소외계층과 함께”

카페 수익금은 ‘사랑의 성금’

불우이웃 돕고 ‘취업 페스티벌’로 치르기도

대학 축제가 변하고 있다. 주말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과거와 달리 불우이웃 돕기·취업관련 행사·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등의 의미가 있는 행사로 바뀌고 있다.

광주대는 올 가을 대동제 기간(18~20일) 동안 ‘사랑의 카페’를 운영했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사랑의 카페’를 개설, 대학 인근 주민 등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들이 낸 기부금으로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학생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광주대는 ‘영남지역 수재민 돕기 총장주막’ ‘북한동포 돕기 총장 포장마차’ 등을 운영, 수익금 4천125만원을 기탁했다.

조선대도 18~20일 대동제에서 ‘북한수혜를 돕기’를 마련했다. 총학생회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인조잔디구장에서 ‘통일 나눔 장터’를 열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가전제품·자전거·옷·컵 등 애장품 200점을 팔았다.

전남대는 19~21일 ‘응봉 대동풀이’에 시민들을 초청했다. 총학 측은 영화 ‘화려한 휴가’ 무료 상영을 비롯한 ‘시민 한마당 노래잔치’ ‘장애 체험’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 등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여대는 17~19일 열린 가을 축제를 성공 취업을 위한 ‘취업페스티벌’로 치렀다. 축제 기간 동안 취업현황과 청년 실업률 문제, 기업입사 전형과정 등 전시용 액자 16개를 교내 곳곳에 전시했다. 또 성지식을 쌓고 기초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성·건강 부스와 중국·베트남 유학생이 자국의 요리를 판매하는 주막도 운영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달걀 굽는 대학총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이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학생 등 불우 학생을 돕기 위해 가을 축제 기간인 19일 ‘사랑의 카페’를 열고 손님들에게 잘 달걀을 굽고 있다. 광주대는 카페 운영 수익금 1천320만원을 태풍 피해 학생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10명 중 7명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운전할 때 버섯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삼성경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운전자 1천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5.6%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

운데 합법적으로 핸드프리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28.9%에 그쳤다.

차량에 디지털위성방송(DMB) 단말기나 내비게이션 등을 장착한 285명 가운데 운전 중 TV를 시청한다는 응답이 37.5%에 달했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실험 결과를 보면 시속 80km의 속도로 고속 주행하면서 휴대전화

를 사용할 경우 제동거리가 58.4m로,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의 제동거리 55.5m보다 더 길었다.

운전 중 DMB 단말기를 시청하는 경우 전방 주시율이 50.3%로 정상 주행(76.5%)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72.0%)에도 못미쳤다. 또 장애물에 대한 반응 시간도 정상 주행시 1.43초가 소요된 반면 DMB 시청시에는 2.00초가 걸려 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영암 삼호읍·순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올 전남 교통사고 최다 ‘주의’

영암군 삼호읍과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등이 올해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길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20일 올 들어 8월 말 현재 구조활동을 기준으로 119 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 전남도에 교통사고 10대 다발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전남도 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영암군 삼호읍 GS칼텍스 호남정유소~삼호중공업 구간으로 모두 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이 31건의 교통사고에 60명의 사상자가 발생, 뒤를 이었다.

3위는 영암군 삼호읍 태형중공업 앞 사거리가 30건에 47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며, 4위는 보성군 벌교~보성 도로로 30건 발생에 35명의 사상자를 냈다.

5위는 28건에 42명의 사상자를 기

록한 광양시 상항동 진월 IC~옥곡 IC 도로가 차지했으며, 6위는 담양군 담양읍 천변~강정리 도로가 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74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밖에 ▲순천시 승주읍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22건 41명) ▲영암군 영암읍 청동원휴게소~풀치터널 도로(21건 23명)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영세공원 부근 도로(20건 32명)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부근(20건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소방본부는 귀성길에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시 중간 휴식과 스트레칭 ▲음식물 섭취 등 운전자 주의를 떨어뜨리는 행위 금지 ▲운전중 TV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 금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소방본부는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역과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 등 38곳에 119급대를 배치해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매장(埋葬)→화장(火葬)으로

화장을 56.5%... 전남 32.7% 가장 낮아

우리 민족 고유의 장사문화가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옮겨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화장률은 56.5%로, 10년 전인 1996년의 23.0%에 비해 2.5배가 늘었다.

복지부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편리주의 등 생활환경 및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화장장터 정액과 사회시민단체의 장사문화 개선운동 등이 맞물리면서 화장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6년 시도별 화장률은 부산이 77.7%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72.4%, 서울 68.2%, 울산 66.9%, 경기 6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2.7%로 화장률이 가장 낮았으며, 충남이 34.4%, 충북이 36.8%로 뒤를 이었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91.9%)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보성군(14.0%)이었다.

복지부는 현재와 같은 화장률 증가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10년에는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화장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06년 시도별 화장률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지역, 화장률. Lists provinces and their respective cremation rates from highest to lowest.

Weather forecast for September 21st.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 table of temperature ranges, and a table of precipitation forecasts for the week.

Survey results titled 'More people prefer cremation than burial'. Includes a bar chart showing preferences for different funeral methods and a list of reasons for choosing cremation.

Advertisement for TEMPIA air conditioning unit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unit, a graph showing energy savings of 77% compared to traditional units, and promotional text about discounts and financing options.

Large advertisement for 'Hanshin University' (한빛공무원학원). Promotes a 'Public Service Exam' (공무원) course with a 10% discoun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ubjects.

Advertisement for 'Hanshin University' (한빛공무원학원) featuring a 'Public Service Exam' (공무원) course. Includes a list of subjects, a discount offer,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TEMPIA air conditioning unit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unit, a graph showing energy savings of 77% compared to traditional units, and promotional text about discounts and financing options.